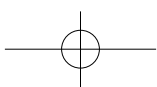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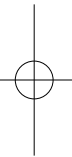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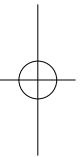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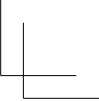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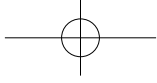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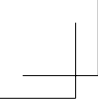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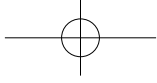


마을학회○○○
창립총회
창립 기념 토론회

더불어 사는
마을에서
무엇을
공부할까

2017년 6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지역센터 마을활력소





2017.
6. 24

창립총회

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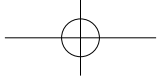
- _개회선언
- _성원보고
- _학회설립 준비위원 인사
- _준비회의 경과보고
- _임시의장 선출
- _의사록 서명 날인인 선정
- _의사일정 확인 및 의안 상정
- _의안 심의
 - 가. 학회 명칭
 - 나. 정관
 - 다.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
 - 라. 운영위원 및 감사 선출
 - 마. 기타
- _운영위원 인사
- _창립 선언문 낭독
- _격려사
- _폐회선언
- _기념 사진 촬영

창립기념토론회

15:30

더불어 사는 마을에서 무엇을 공부할까

- _마을학회,
21세기 농촌의 삶과 앞을 위하여
박영선 @마을학회○○○
- _연구자는 현장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김기흥 @충남연구원
- _자유토론
'더불어 사는 마을에서 무엇을 공부할까'
모두



차례

03_일정

04_자료집 차례

마을학회○○○ 창립총회

06_창립선언문

08_학회 설립 준비 경과 보고

12_창립총회 의안 심의

13_가. 학회 명칭

14_나. 정관

20_다.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

27_라. 운영위원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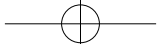
28_마. 기타

창립 기념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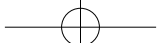
더불어사는 마을에서 무엇을 공부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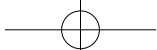
31_마을학회, 21세기 농촌의 삶과 앎을 위하여 / 박영선

33_연구자는 현장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 김기흥



마을학회○○○
창립총회





마을학회 창립선언문 : 21세기 농촌의 삶과 앓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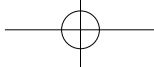
21세기에 들어 마을, 그리고 마을에서의 삶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마을은 인류가 농경과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 이래 수천 년간 지속하여 온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마을은 한동안 잊혔습니다.

지난 20세기에 서유럽과 북미가 주도한 산업자본주의 문명은 강대국과 대도시, 전문가 중심의 개발과 발전 논리를 바탕으로 건설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소국, 지방, 농어촌, 마을, 보통사람은 일방적으로 무시되고 희생되었습니다. 강자와 약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사이의 나눔과 차별이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당연시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심각한 폐해를 불러왔습니다.

사람들은 상품으로 가득 찬 대도시에 뿔뿔이 흩어져, 신상품을 구매할 돈 버는 일에 몰두하는 이기적인 소비자들이 되어갔습니다. 자연환경은 인간의 무절제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무제한으로 개발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농촌과 도시, 지역과 국가를 가릴 것 없이 전 지구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과 대기오염, 폭력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지구가 결정적으로 파괴될 것이며 인류라는 종은 절멸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학자들의 경고가 아니어도, 우리는 이미 그 위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근대 문명이 초래한 이 같은 중대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세계적으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세기 문명에서 ‘낳고 뒤떨어진’ 것으로 무시되어온 농촌 공동체, 마을에서의 삶과 잊힌 전통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변두리’로 치부되었던 농어촌, 지방, 시골, 마을이 지금의 문명적 위기를 해결하고 21세기의 새로운 가치를 탐색하고 구현할 ‘살아있는 장場’이라는 깨달음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들, 서로 다른 것들 사이의 평등하고 생태적인 공존과 통합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려는 노력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연구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20세기 연구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활인과 활동가와 연구자가 통합된 ‘새로운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을은 농경 공동체의 오랜 기억과 역사가 살아있는 흙과 땅이 있습니다. 그 위에 근현대적 시민 평등과 절제와 부조의 생태적 공존 가치를 실천하는 농민교육과 유기농업, 생활협동조합의 전통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의 노고와 참여로 이루어진 이 독특하고 소중한 조건은, 21세기가 추구하는 평등과 통합의 삶을 공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이제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된 우리 마을의 깊고 귀한 경험과 특별한 조건을 되살리고, 마을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사건들을 충실히 기록하며 마을의 삶과 앎을 아우르는 새로운 공부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부의 과정과 성과를 잘 기록하고 정리해서 전 지구의 여러 이름 모를 마을들과 공유할 때입니다. 마을마다 쌓아온 특수한 경험과 조건을 서로 나누고 배워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며 지속 가능한 보편 경험으로 넓혀나갈 때입니다. 그럴 때 20세기 산업자본주의가 초래한 닫힌 마을 닫힌 지역들의 고립과 문명적 위기를 넘어 21세기의 열린 마을 열린 지역들의 살아있는 연대와 새로운 삶이 가능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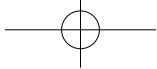
이를 위한 작은 시도로서, 마을학회를 창립하려 합니다. 마을에서 학회 라는 형식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회學會는 풀어서 말하면 ‘짜임새 있게 운영되는 새로운 공부 모임’입니다.

마을학회에서는 ‘삶과 앎의 통합’이라는 21세기적 가치의 큰 바탕 위에서 마을 사람, 마을 활동가, 연구자들이 모여 그간의 단절되고 편향된 관계를 넘어서 함께 공부하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얻어진 앎을 짜임새 있게 정리하고 확장해서 마을의 삶으로 새롭게 되돌리고자 합니다.

아직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 마을에서 학회를 창립하는 뜻은 뚜렷하고 깊습니다. 21세기에 다시 요청되는 가치인 삶과 앎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함께 새롭게 공부하는 마을과 21세기 농촌의 문명적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신 모든 분들의 지지와 참여 속에서, 이제 마을학회는 그 첫걸음을 시작하려 합니다.

2017. 6. 24

마을학회○○○ 설립 발기인 대표 박영선



학회 설립 준비 경과 보고

2015. 8. 23. 일요일 @품무학교 강당

- _무교회집회 스즈끼 토시마사 鈴木敏正 홋카이도대학 명예교수 특강 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안 :
1. 흥동학회 설립 : 농업, 교육, 복지, 경제, 문화 등 모든 방면이 통합되는 시기.
통합을 통해 어떤 지역을 만들어 갈 것인가.
지역 역사 기록, 지역의 특색,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연구모임
 2. 지역 주민과 전문가, 기관 등이 함께 지역발전종합계획 수립, 지역 만들기 공동 실천
 3. 모든 분야에서의 자기학습, 평생학습, 학교 간 협력을 넘어서 지역 기반의 평생교육체계

2016. 8. 22. 월요일 @흥동 밝맑도서관 아고라방 사회 : 양병찬 공주대학교

- _일본 지원학의 동향과 발전과제 / 스즈끼 토시마사 鈴木敏正 홋카이도대학 명예교수
_지역학회 구상과 제안1 / 정민철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2016. 10 ~ 201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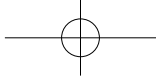
- _지역학회 설립 제안 준비모임 / 구자인, 박영선, 정민철, 신소희



2017. 1. 11. 수요일 @흥동 밝맑도서관 아고라방 사회 : 신소희

(가칭)지역학회○○ 설립을 제안합니다.

- _학회 설립제안배경 / 구자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_학회 구상과 제안 / 박영선 고등과학원
_모두의 생각 나누기
_학회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및 일정 논의



2017. 2. ~ 6.

학회 설립 준비회의

_총 8차례 진행

_준비회의 : 강국주, 구자인, 김명숙, 김기흥, 김성남, 김정섭, 박동진, 박영선, 박완, 배지현, 신소희, 신형중, 안현경, 오도, 유준재, 이동근, 이민형, 이변영, 이창신, 장유리, 정민철, 정영은, 황바람 (이상 23명 1회 이상 참여)

2017. 2. 18. 토요일. 1차 준비회의 @홍동 밝맑도서관 2층
준비회의, 학습세미나와 공동 워크숍 기획, 준비과정 논의사항 확인

2017. 3. 11. 토요일. 2차 준비회의 @홍동 밝맑도서관 2층
공개학습모임 세부 계획 정리, 학회 활동 계획 논의

2017. 4. 8. 토요일. 3차 준비회의 @홍동 밝맑도서관 2층
단체 형태, 회원, 회비 예산 설정, 지역 기록 활동 관련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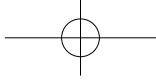
2017. 4. 22. 토요일. 4차 준비회의 @문당리 논배미 사무실
회원 모집과 서비스, 사업 진행 논의, '공부모임의 문명사' 공유

2017. 5. 13. 토요일. 5차 준비회의 @지역센터 마을활력소 1층
학회 명칭 제안, 창립총회 준비, 충남연구원 공동세미나 논의

2017. 5. 27. 토요일. 6차 준비회의 @장곡오누이권역센터
학회 명칭 제안, 창립총회 일정

2017. 6. 6. 화요일. 7차 준비회의 @장곡오누이센터
창립총회 준비, 정관 가안, 조직도 가안 작성

2017. 6. 14. 수요일. 8차 준비회의 겸 마을학회 설립 발기인대회 @홍동 밝맑도서관 2층
정관, 사업 및 예산안 수정 작성, 창립총회 진행 논의



2017. 4. ~ 5.

공개학습모임 사회 : 구자인

_총 4차례 진행

_학회 설립 전 학회 연구, 활동방향 모색, 주제 발굴, 지역 내 공감대 형성

_주제학습, 지역사회발표, 공동토의 방식

4월 8일 토요일 오후 3~6시 @홍동 밝맑도서관

지역연구,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지역연구의 개념과 동향 / 박영선, 신소희 @ (가칭)○○지역학회
- 홍동 마을의 공동체와 네트워크 / 이관률 @충남연구원

4월 22일 토요일 오후 3~6시 @문당리 환경농업교육관

농촌 현장에서 지식 생산이 가능할까?

- 농촌에서 일이 벌어지는 순서 /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자연순환형 민물어종을 활용한 공생농법 산학협력연구 / 주형로@정농회, 김수경@황새복원센터
- 홍동 유기농업의 형성과 변천 / 김기흥 @충남연구원

5월 13일 토요일 오후 3~6시 @지역센터 마을활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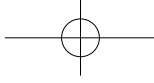
지역활동의 기록과 공유, 함께 하기

- 청양의 마을문서를 통해 본 사회적 자본 / 김명숙 @마을문화연구소
- 홍동 지역 아카이브 역사와 활동 / 정영은 @마실통신, 홍동밝맑도서관
- 개별 단체 기록 활동 사례 / 문수영 @홍성씨앗도서관
- 마실통신에 나타난 지역단체 간 협업활동의 사회연결망 분석 / 황바람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5월 27일 토요일 오후 2~6시 @장곡 오누이권역센터

지역기반학습 : 학교와 마을을 넘어

- 지역교육공동체 창조를 위한 학교와 지역의 협동 / 양병찬 @공주대학교
- 지속가능한 농촌마을교육 '온마을학교' / 최수영 @햇살배움터교육네트워크
- 농촌 지역기반 일-학습 병행 체계 / 정민철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001

1. 지역연구,
어떻게 하고 있는가?

4/8(토) 오후 3시~6시
홍동밝람도서관

지역연구의 개념과 동향
박영선 신소희 @ (가칭) ○○지역학회
홍동 마을의 공동체와 네트워크
이연복 @홍남연구소

농촌 현장에서
지식 생산이 가능할까?

4/22(토) 오후 3시~6시
문당리 환경농업교육관

농촌에서 일이 벌어지는 순서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연순환형 민물어종을 활용한 공생농법' 산학협력연구
주영로 @경농회 + 김수경 @황새목원센터
홍동 유기농업의 형성과 변천
김기홍 @홍남연구소

2.

3. 지역 활동의 기록과 공유
함께 하기

5/13(토) 오후 3시~6시
마을활력소

청양의 마을문서를 통해 본 사회적 자본
김영숙 @마을문화연구소
홍동 지역 아카이브 역사와 활동
정영운 @홍동밝람도서관, 마실통신
개별 단체 기록 활동 사례
문수영 @홍성씨앗도서관
마실통신에 나타난 지역단체 간 협업활동의 사회연결망 분석
황바람 @홍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4.

지역기반학습
: 학교와 마을을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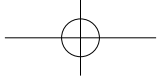
5/27(토) 오후 2시~6시
장곡 오누이권역센터

지역교육공동체 창조를 위한 학교와 지역의 협업
양병찬 @공주대학교
지속가능한 농촌마을교육 '온마을학교'
최수영 @맛살배움리교육네트워크
농촌 지역기반 일-학습 병행 체계
정인철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가칭) ○○지역학회
공개학습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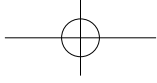
(가칭) ○○지역학회 설립 준비 학습모임입니다.
주제 학습과 지역 사례 발표, 공동 토의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010-3131-1909 about.locality@gmail.com http://cafe.naver.com/oolocalsociety



창립총회 의안 심의

- 가. 학회 명칭
- 나. 정관
- 다.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
- 라. 운영위원 및 감사 선출
- 마. 기타



의안 가. 학회명칭

마을학회 vs. 지역학회

- _마을 : 일본에서 온 개념어 탈피, 상호주관성, 관계의 함축적 의미, 자치 개념 포함,
기존 지역학과의 구분
- _지역 : 농촌에서 마을은 매우 협소한 공간적 범주. 보다 구체적인 명칭이 필요

1. 마을학회 학전^{學田}

- _〈마을학회 밭 學田〉 field, MAEULogy in Society 로 처음 제안
- _학교, 학회를 넘어선 배움밭, 현장이라는 의미를 통해 자연스럽게 농촌, 농업의 이미지도 연상

2. 마을학회 일소공도

- _일만 하면 소, 공부만 하면 도깨비의 준말 : 일과 공부, 삶과 앎, 지역(현장)과 연구의 균형 강조
- _지역 명칭이나 풀무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지역성을 드러낼 수 있음

3. 학회 지역과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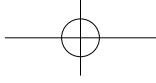
- _학회 설립 초기 제안, 설립 취지(지역의 경험)와 맞닿아 있음

4. 마을학회 동답

- _공개학습모임에서 제안, 同畝:함께 농사짓는 논, ‘동무들이 함께 답을 찾는다.’

5. 마을학회 공생

- _지역주민 이메일 제안, 더불어 사는 마을, 함께 살이



의안 나.
정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마을학회○○○이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의 위치

본 학회의 사무국은 충청남도 홍성군에 둔다.

제3조. 목적

마을학회○○○은 일과 공부가 나누어지지 않은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모든 마을 사람과 함께 한다. ‘일만 하면 소가 되고 공부만 하면 도깨비가 된다’는 일소공도의 가르침을 21세기의 문명적 위기 상황 안에서 다시 성찰하며 공소일도(공부하는 소, 일하는 도깨비)의 가치를 실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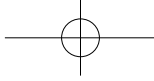
제4조. 사업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실행한다.

- 가. 정기·수시 세미나, 워크숍 및 학술발표회 개최
- 나. 정기간행물, 연구 자료집 등 학술 활동에 필요한 간행물 발행
- 다. 지역 연구 기획과 진행, 연구자와 지역의 연결 및 조정
- 라. 국내외 연구 교류
- 마. 관련 자료 수집 및 아카이빙
- 바. 지역과 농업을 기반으로 한 학습 체계 구축
- 사.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 학회의 이익

학회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이로서,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 가. 뿌리(일반)회원 : 지역 주민과 학생 등 관련 연구, 활동 소식을 공유하는 개인 및 단체
- 나. 줄기(참여)회원 : 관련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로 월 회비를 납부하는 자

제7조. 회원가입

본 학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는 소정의 가입비와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에게는 각 호의 의무가 있다.

- 가.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나. 총회 참석과 총회 및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준수

제9조. 회원의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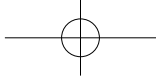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심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10조. 회원의 징계

본 학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명예를 손상하였을 경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명할 수 있다.

제11조. 후원 및 구독

- 가. 후원자 : 본 학회의 목적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낼 수 있다.
- 나. 구독자 : 본 학회의 정보 수신에 동의한 누구나 학회의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12조. 총회

총회는 본 학회 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이다.

제13조. 총회의 개최

가. 매년 1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부득이한 이유로 불참하는 회원은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라.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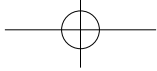
가. 정관 변경

나. 사업, 예결산의 승인

다. 운영위원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

라.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마. 학회 해산 (출석 회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



제4장 조직

제1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본 학회의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다.

- 가. 공동운영위원장 3인
- 나. 운영위원은 9인 이상 20인 이하로 한다. (운영위원장을 포함한다.)
- 다. 사무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16조. 운영위원장의 직무

운영위원장은 정기 운영위원회 및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위원의 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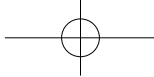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학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가. 학회 업무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 나. 임시총회 소집
- 다. 학회 운영에 필요한 규칙 제정
- 라. 학회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

제18조. 감사의 직무

본 학회는 감사 1인 이상을 두며, 감사는 다음의 임무를 행한다.

- 가. 학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일 및 운영위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요구하는 일
- 나.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 다. 학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일
- 라. 제 '다'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임시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9조.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 가. 정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3개월마다 소집한다.
- 나. 임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 다.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 전에 회의 안건을 명시 하여 운영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운영위원 전원이 집회하고 그 전원이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라.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운영위원 및 감사의 선임

본 학회의 회원은 누구나 운영위원 및 감사에 선출될 수 있다.

- 가.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나.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들의 추천과 제청으로 선임한다.
- 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라.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위원 및 감사의 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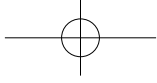
운영위원 및 감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가.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나. 학회원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다.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1조. 사무국 설치와 구성

본 학회 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실무적 집행을 위하여, 또한 모든 문서의 기록과 보존 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가.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사무간사를 둘 수 있다.
- 나. 사무국의 편제, 임무, 사무간사의 자격, 근로조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2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후원금, 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3조. 회계 및 회계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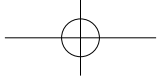
가. 감사는 본 학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매년 1년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정관은 학회 창립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의안 다. 사업 및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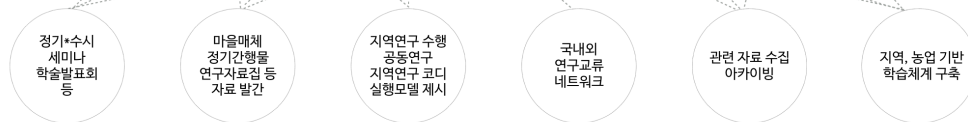
목적

일과 공부가 나누어지지 않은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모든 마을사람과 함께합니다.
‘일만 하면 소가 되고 공부만 하면 도깨비가 된다’는 일소공도의 가르침을
21세기의 문명적 위기 상황 안에서 다시 성찰하며
공소일도(공부하는 소, 일하는 도깨비)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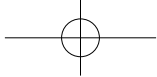
활동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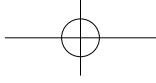
사업

공개학습모임(4~5월) <한국의 농업 현실과 사회적 농업> 월례 세미나(4~11월)	자료집 발간 -공개학습모임 -사회적농업 등	충남연구원 공동토론회 (6, 8, 10, 11월)	한일 연구교류 소농학회 지역방문 코디	지역 관련 논문 수집 지역자료 전산화	제1차 강학회(7월) 김정섭 제2차 강학회(겨울) 김건우
농업*농촌주간 진행 (11월)	학회지 (1회, 계간)		지역 청년 일본 연수		



2017년 사업





1. 연간활동

가. <한국의 농업 현실과 사회적 농업> 월례세미나 별도사업예산 : 홍성군농업기술센터

_일시 : 2017년 4월 ~ 11월, 매달 마지막 월요일

_장소 : 장곡면 오누이권역센터

_주관 : 홍성군농업기술센터

_주최 : 협동조합 행복농장,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 마을학회 ○ ○ ○

4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

사회적농업의 현재 /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

5월 29일 월요일 오후 5시

생산주의 농업에서 다기능 농업으로, 농정패러다임의 진화 /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

6월 26일 월요일 오후 7시

농업의 치료적 요인 Therapeutic Factors of Agriculture / 안병은 @협동조합 행복농장 이사장

7월 27일 월요일 오후 6시

유럽의 사회적농업 / 이정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초빙연구원

9월 25일 월요일 오후 6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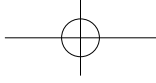
농촌 마을과 사회적경제의 연결 / 구자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10월 30일 월요일 오후 6시

사회적농업의 지역 사례 : 홍성군 장곡면 / 정민철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상임이사

11월

사회적농업 심포지엄



나. 충남연구원 미래마을연구회 공동세미나 별도사업예산 : 충남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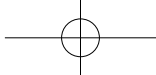
_2017년 6, 8, 10, 11월 총 4회 마을학회와 미래마을연구회의 공동 세미나 기획 및 개최

_배경 및 목적 :

- 1) 마을(지역사회)의 미래와 관련한 이론 및 실천정보의 융복합 공유와 심층토론
 - 마을은 지역사회의 축소판으로 다양한 이론과 정책, 실천이 변증법적으로 전개
 - 현장 연구를 진행하는 각 영역별 연구자가 융복합 접근을 통해 실천가능한 대안 모색
 - 미래 마을을 주제로 한 현장학습 활동 진행(공동 워크숍 개최 등)
- 2) 연구자와 현장 활동가 및 주민 사이의 '좋은 만남' 방법론 검토
 - 현장이 연구 '대상'으로만 다루어지는 경향을 반성하고,
 - 현장 활동가 및 리더들이 자기 실천의 경험을 통해 연구 '주체'로 발전하는 방향성 검토
 - 연구자 및 현장이 서로 만나는 연구방법론 차원의 개선방향 모색
 - 다양한 현장 연구방법론과 적용사례, 문제점, 과제 등에 대한 워크숍 개최
- 3) 리빙랩으로서 현장 연구와 실천 사례의 결합 방법 검토
 - 충남연구원에서는 이미 많은 현장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고, 다양한 광역 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체계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확산이 매우 더딘 상황
 - 현장연구 성과가 집중되어 있는 홍성군 홍동면 일원을 대상으로 리빙랩 개념에서 미래 마을을 구상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검토
 - 홍성군의 홍동면과 장곡면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마을학과 충남연구원의 공동협력을 통해 현장연구 성과가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는 시스템 검토

_2017년 6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지역센터 마을활력소

마을학회○○○ 창립 기념 토론회 <더불어 사는 마을에서 무엇을 공부할까> 공동 주최



다. 강학회 학회예산 : 참가비

1차 여름 강학회

- _일시 : 7월 28일(금)~29일(토), 1박 2일, 12시간
- _장소 : 장곡면 오누이권역센터
- _강사 : 김정섭@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
- _주제 : 농민과 학습, 농업을 분석하는 관점, 농촌 마을과 사회적 경제, 가족농과 한국 농촌, 정부의 농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소개 등

2차 겨울 강학회

- _2018년 1월 중 2박 3일
- _김건우@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지역사상사 강의 예정

라. 정기학술대회 진행

- _2017년 11월 농업농촌 주간 중

2. 일상활동

가. 자료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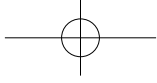
- _공개학습모임, 사회적농업, 미래마을연구회 공동세미나 등 녹취, 원고 작성, 자료집 발간
- _회의록 작성

나. 학회지(지역 정기간행물) 창간

- _편집위원회 구성, 계간/반년간지/무크지 등 학회지 발간 횟수 및 형태 논의
- _연내 창간호 1회 간행 목표

다. 지역 방문, 교류 기획 및 진행

- _2017년 11월 일본 소농학회 방문, 교류 예정



라. 지역 관련 자료 수집 및 기록

- _지역 관련 논문 수집, 지역 연구자료 검색 체계, 연구지(도) 만들기
- _지역 자료 전산화

3. 학회 운영, 관리

가. 사무국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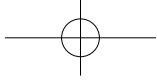
- _사무국 위치, 역할, 운영예산 등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 _사무국 : 신소희, 장유리
- _2017년 활동비 : 충남사회적경제청년활동가(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지역학습관련,
청년 귀농 교육농장 시범운영사업(청년농부영농조합법인) 교육 관리 겸업

나. 회원 모집 및 관리

- _2017년 일반회원(가입비만 납부) 40명, 참여회원(가입비/월회비 납부) 60명 모집 목표
- _회원 서비스 : 학회 활동 정보 제공, 세미나, 강학회 등 참여, 학회지 및 자료집 송부 등

4. 기타 활동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업



5. 예산안

가.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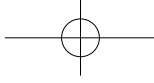
_회비수입(일반회원 40명, 참여회원 60명 가정)

_후원수입(창립준비후원금 포함)

나. 지출

_운영비 : 임대료, 공과금(전기, 통신비), 사무집기, 대외활동비, 식비, 출장비, 세미나 강사료 등

수 입			
회비수입	가입비	20,000원 × 100명	2,000,000
	회비	10,000원 × 60명 × 6개월	3,600,000
후원수입	후원금		2,000,000
합계			7,600,000원
지 출			
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전기, 통신비 등) 200,000원 × 6개월	1,200,000
	사무집기	사무집기 및 용품 구입비 종이, 프린터 잉크 등	1,000,000
활동비	대외활동비	교류	1,000,000
	식비/출장비	300,000원 × 6개월	1,800,000
사업비	진행비	정기세미나, 강학회 등 100,000원 × 6회	600,000
	강사비	200,000원 × 10회	2,000,000
	자료인쇄비	자료집, 학회집 인쇄	1,000,000
합계			8,600,000원



의안 라. 운영위원 감사선출

가. 운영위원회

_본 학회 회원 중 9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

_공동운영위원장 3인은 선출된 운영위원들의 추천과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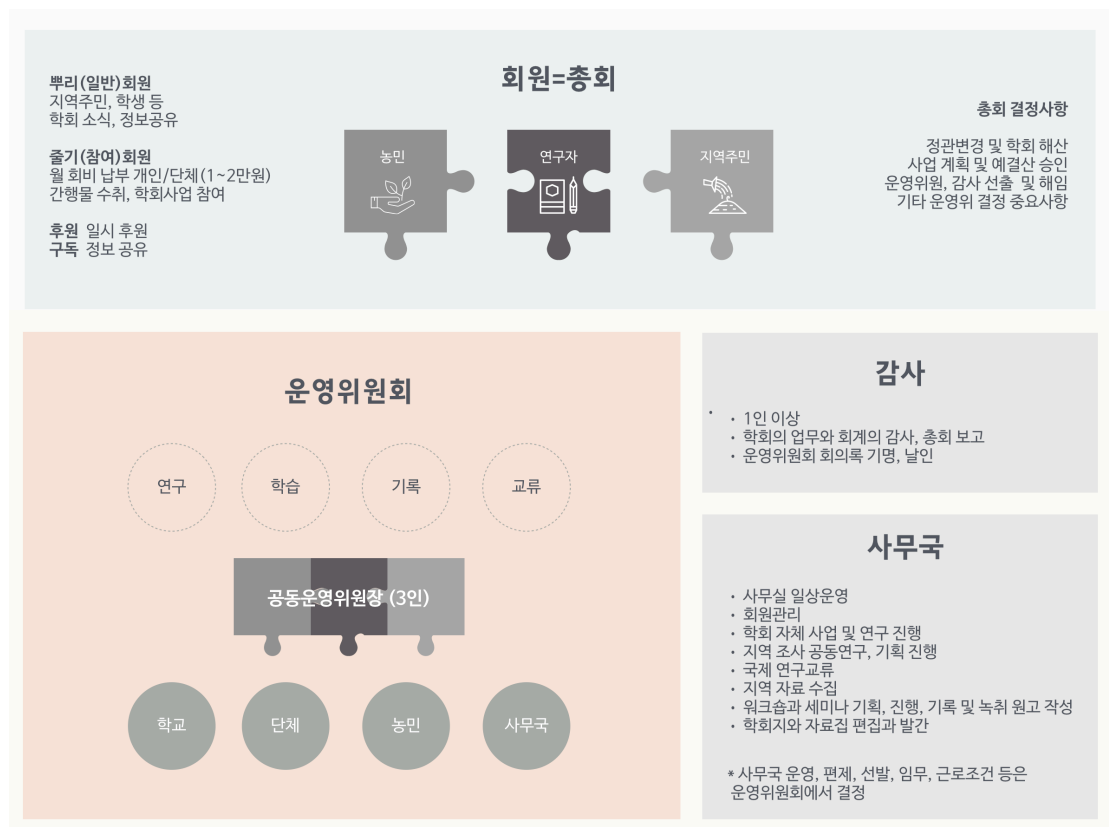
_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은 3년 임기, 연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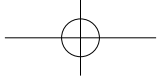
_직무 : 학회 업무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임시총회 소집, 학회 운영에 필요한 규칙 제정, 학회 수입과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

_학회의 역할, 활동 영역 고려 : 지식생산 / 지식공유 / 지역기록 / 지역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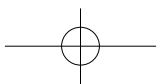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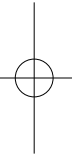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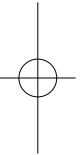
나.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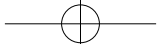
_본 학회 회원 중 1인 이상, 학회의 업무와 회계의 감사, 총회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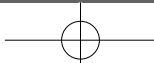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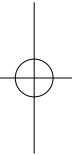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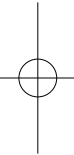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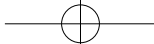
기타 발의 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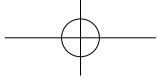




마을학회○○○
창립기념 토론회

더불어 사는
마을에서
무엇을
공부할까





발제

마을학회, 21세기 농촌의 삶과 앎을 위하여

마을학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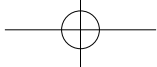
박영선

21세기에 들어 마을, 그리고 마을에서의 삶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마을은 인류가 농경과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 이래 수천 년간 지속하여 온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마을은 한동안 잊혔습니다.

지난 20세기에 서유럽과 북미가 주도한 산업자본주의 문명은 강대국과 대도시, 전문가 중심의 개발과 발전 논리를 바탕으로 건설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소국, 지방, 농어촌, 마을, 보통사람은 일방적으로 무시되고 희생되었습니다. 강자와 약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사이의 나눔과 차별이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당연시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심각한 폐해를 불러왔습니다.

사람들은 상품으로 가득 찬 대도시에 뿔뿔이 흩어져, 신상품을 구매할 돈 버는 일에 몰두하는 이기적인 소비자들이 되어갔습니다. 자연환경은 인간의 무절제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무제한으로 개발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농촌과 도시, 지역과 국가를 가릴 것 없이 전 지구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과 대기오염, 폭력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지구가 결정적으로 파괴될 것이며 인류라는 종은 절멸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학자들의 경고가 아니어도, 우리는 이미 그 위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근대 문명이 초래한 이 같은 중대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세계적으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세기 문명에서 ‘낡고 뒤떨어진’ 것으로 무시되어온 농촌 공동체, 마을에서의 삶과 잊힌 전통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변두리’로 치부되었던 농어촌,



지방, 시골, 마을이 지금의 문명적 위기를 해결하고 21세기의 새로운 가치를 탐색하고 구현할 ‘살아있는 장場’이라는 깨달음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들, 서로 다른 것들 사이의 평등하고 생태적인 공존과 통합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려는 노력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연구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20세기 연구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활인과 활동가와 연구자가 통합된 ‘새로운 공부’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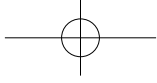
우리 마을은 농경 공동체의 오랜 기억과 역사가 살아있는 흙과 땅이 있습니다. 그 위에 근현대적 시민 평등과 절제와 부조의 생태적 공존 가치를 실천하는 농민교육과 유기농업, 생활협동조합의 전통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의 노고와 참여로 이루어진 이 독특하고 소중한 조건은, 21세기가 추구하는 평등과 통합의 삶을 공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이제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된 우리 마을의 깊고 귀한 경험과 특별한 조건을 되살리고, 마을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사건들을 충실히 기록하며 마을의 삶과 앎을 아우르는 새로운 공부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부의 과정과 성과를 잘 기록하고 정리해서 전 지구의 여러 이름 모를 마을들과 공유할 때입니다. 마을마다 쌓아온 특수한 경험과 조건을 서로 나누고 배워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며 지속 가능한 보편 경험으로 넓혀나갈 때입니다. 그럴 때 20세기 산업자본주의가 초래한 닫힌 마을 닫힌 지역들의 고립과 문명적 위기를 넘어 21세기의 열린 마을 열린 지역들의 살아있는 연대와 새로운 삶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작은 시도로서, 마을학회를 창립하려 합니다. 마을에서 학회 라는 형식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회學會는 풀어서 말하면 ‘짜임새 있게 운영되는 새로운 공부 모임’입니다.

마을학회에서는 ‘삶과 앎의 통합’이라는 21세기적 가치의 큰 바탕 위에서 마을 사람, 마을 활동가, 연구자들이 모여 그간의 단절되고 편향된 관계를 넘어서 함께 공부하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얻어진 앎을 짜임새 있게 정리하고 확장해서 마을의 삶으로 새롭게 되돌리고자 합니다.

아직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 마을에서 학회를 창립하는 뜻은 뚜렷하고 깊습니다. 21세기에 다시 요청되는 가치인 삶과 앎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함께 새롭게 공부하는 마을과 21세기 농촌의 문명적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신 모든 분들의 지지와 참여 속에서, 이제 마을학회는 그 첫걸음을 시작하려 합니다.



발제

연구자는 현장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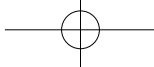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김기흥

유기농업의 현장

- _지역공동체 복원 운동 : 일본 아시가라 노노카이 유기농업 통한 지역 순환 실현 노력
- _동북태국 전통농업 복귀 : 동북태국은 태국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 과연 정말 빈곤한가?
- _베트남 호이안 유기농 투어리즘 : 200년 넘는 농업지역에서 유기농업인지도 모르고
지역환경 고려한 전통적 농법 실천
- _방글라데시 그라민뱅크 : 빈곤국 중 하나, 여성의 자립을 위한 소규모대출(micro credit)
유기농 묘목 판매로 자립 실현, 자존감 회복

유기농업의 정의

- _유기농업은 다양한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운동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환경부하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음
- _좁은 의미: '화학적으로 합성된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는 농업'
- _넓은 의미: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에 부하를 주지 않으며 식의 안전과
지역 환경 보전을 지향하는 농업'
- _여기에는 생산자만 아니라 소비자인 지역주민도 포함되며, 지역 커뮤니티(공동체) 전체의 기능
이 지속가능해야 함
- _여기서는 유기농업을 이러한 넓은 의미로 다루기로 함



유기농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_유기농업 안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 (생물다양성, 공정무역, 동물복지, 경관보존, 토종종자, GMO 반대운동 등)와 가치의 반영

_기존의 비용, 생산성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_유기농업은 사람의 ‘삶, 생활 자체’에 초점을 두고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가고자 하는 실천 및 운동으로 볼 수 있음

_이것은 케이퍼빌리티 어프로치(Capability Approach)가 사람의 Well-being(삶의 질)에 초점을 두는 것과 일치함

케이퍼빌리티 어프로치

_케이퍼빌리티(Capability)란 사람이 ‘달성가능한 기능(functioning)의 여러가지 조합’ (Amartya Sen, 1988)을 말함

_‘무엇이 가능한가’ (doing),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being) 하는 선택지의 폭을 나타냄

_다양한 선택지가 증가함으로써 삶이 좋아지게 됨

_개발, 발전(development) = 자유(freedom)의 확대

_빈곤과 불평등, 개발(development)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 제시(아마르티아 센, 1998년 노벨경제학상)

케이퍼빌리티 리스트와 ‘연대’

_누스바움(Nussbaum) 리스트: 1.생명 2.신체적 건강 3.신체적 보전 4.감각·상상력·사고 5.감정 6.실천 이성 7.연대 8.자연과의 공생 9.유희 10.환경의 컨트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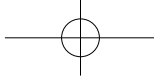
_7. 연대(affiliation) A. 다른 사람과 함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며 관심을 보이는 것.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교류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한 것.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른 입장을 동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 정의와 우정의 쌍방에 대해 케이퍼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

유기농업 생산자 소비자 ‘연대’

_생산자와 소비자는 단순히 유기농산물을 매매하는 관계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유기적 관계

_소비자는 생산자의 농업 사정과 생활을 지지

_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먹거리와 생활을 지지



- _전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연대가 지역에 밀착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일본의 1970년대부터 시작된 생산자 소비자 제휴운동, 현재도 큰 축
 -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한 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지역이 지지하는 농업)
 - 프랑스를 중심으로 AMAP (Associations pour le Maintien d'une Agriculture Paysanne: 소농을 지키는 조직)
 - 스위스의 ACP (Agriculture Contractuelle de Proximite: 생산자 소비자 근접 계약 농업) 등

프랑스 AMAP 그룹 AMAPop 몽트레이유(Montreu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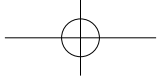
- _AMAP: 2001년 프랑스 남부에서 발족
- _2010년 1,200개 이상의 그룹으로 증가
- _일인의 생산자와 소비자 그룹 체제
- _계절계약판매, 가격과 생산계획, 배송방법을 소비자가 함께 결정
 - 티에르루루(33세)
 - 총면적 : 50ha (채소15ha, 곡물35ha)
 - 채소 65종류
 - 6개의 AMAP에 농산물 제공
 - 50명 소비자, 12명의 자원봉사소비자
 - 6주에 한번 미팅

동북태국 지역 유기농업그룹 카라신(Kalasin)

- _국왕의 '자족경제(Sufficiency economy)' 제창
- _전통농법그룹 2000년부터 시작, 2013년 100명
- _불교를 바탕으로 한 자립적 생활을 지향
- _비용삭감과 수확증대 효과
- _지역 농협과 정미소 활용
- _지역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의 연대

베트남 니코니코 농장 부온마투옷(Buon Ma Thuot)

- _일본인 시오카와씨(28)
- _2010년 5월에 시작
- _0.53ha, 10명의 노동자, 4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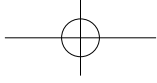
- _채소 20-30종류
- _호치민 소비자 150명 직거래, 패밀리마트
- _소비자그룹 ‘채소모임’ 결성
 - 3개월에 한번 미팅, 20여 명 참가
 - 스터디 투어, 유기농장 방문 등 연대 도모
- _지역 활동 확대: 지역 학생 및 유치원 지원
- _참가형인증시스템 도입(거버넌스의 형태)

유기농업: 거리의 문제 / 생산자와 소비자

- _직접 만나야 한다
- _다양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 _오리는 제초 뿐 아니라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 _매기농법은 생태적, 순환적 의미를 가지며...
- _화학비료를 대신해서 퇴비를 만들어...
- _청년들이 새로운 삶을 목표로 유기농에 도전하며...
- _농민 개인에 보다 집중하게 된 이유
- _직접 현장에서 이들을 만나야 하는 이유
- _외부의 선입견과 잣대로 판단하면 안되는 이유
- _유기농업을 통해 실제로 ‘무엇이 가능한지’, ‘어떤 상태가 실현되었는지’ 개인의 삶 자체에 집중하고자 함

현장과 연구자: 거리의 문제 / 현장과 연구자

- _직접 만나야 한다
- _다양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 _이론은 이런데, 실상은 어떠한지...
- _정책은 이런데, 필요한 건 어떤 것인지...
- _지원 자체가 필요한 건지...
- _개인의 보다 나은 삶 자체에 집중한 정책...



마을학회○○○에 가는 기대

- _현장에 답이 있다!
- _그러나 현장을 다 반영하기는 어렵다
- _현장에서 보고도 다시 지역주민(대상자)과 확인하는 작업 필요
- _마을학회○○○는 현장과 연구자의 소통 창구로
- _애매한 것은 애매한 대로...(불완전순위, 아마르티아 센)
- _현장에서 소통하면서 (애매한대로) 답을 얻어나가자.

